

대회개최 D-9 남은 과제

성패 가를 관람객 유치 사활 걸어라

진입도로·조경 등 마무리 작업 만전을 분위기 띄워 지역민 우려 불식시켜야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영암 개최가 마침내 확정됐다. 술한 우려와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F1 대회를 영암에서 치르는 기쁨을 맞게 됐지만 성공 개최를 위해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최종 검수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진입도로 공사과 인근 조경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이런 데서 경주를 하는거야'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개최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지역민들에게 팽배했던 만큼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경주장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 길 안내판도 안보이고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더라'고 문의

하는 지역민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남은 9일 동안 관람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준영 지사는 민선 5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내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도 국회에서 F1 대회에 대해 첫 3년 동안 적자를 예상했다.

KAVO측은 티켓 판매량 및 기업 스폰서십 유치 여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12만석 가운데 4만5000석 가량, 1만6000석인 그랜드 스탠드의 경우 6000석 정도가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기업 스폰서십도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첫 대회가 앞으로의 7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관람객 및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교통·숙박 문제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영산호를 가로지르는 무영대교(길이 860m·폭 26.2m) 개통이 무산되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회 교통수단으로 철저하게 교통을 분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호텔·리조트(290실), 모텔(9982실)·한옥민박(480실) 등 1만3689실에 대해 예약이 이뤄진 상태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한 12일 영암 F1경주장은 한옥모양의 통로 설치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하엘 슈마허 21일 입국

18일부터 F1 머신·장비 속속 무안 도착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는 12일 "18일부터 F1 머신과 장비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며 미하엘 슈마허 등 드라이버들도 속속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F1 머신은 18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뒤 화물차량으로 옮겨져 들어오게 된다. 일부 장비는 경주장에 도착해 설치에 들어갔다. 세계에 24명뿐인 드라이버들도 속

속 영암을 찾는다.

미하엘 슈마허의 경우 21일 오전 8시30분 전세기편으로 무안공항에 도착하며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 F1 매지니먼트(FOM) 회장도 오전 8시50분 전세기편으로 무안을 찾는다.

영암 서킷을 최초로 주행한 인도 출신 드라이버 카룬 찬독도 21일 A319 전세기편으로 무안공항을 찾는다. 22일에도 러시아 등지의 드라이버가 무안공항으로 입국한다.

“F1 서킷 검수통과 환영” 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F1코리아 서킷이 마침내 검수를 통과해 당원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면서 “영암 대회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회지만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잇따라기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암에서 7년 동안 열리는 2010 F1 그랑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전남의 일에도 러시아 등지의 드라이버가 무안공항으로 입국한다.”

“F1 서킷 검수통과 환영”

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가족 스포츠 정착=일본 팬들의 F1 사랑은 대를 이어 정도로 뜨거웠다. 50여년에 가까운 서킷 역사와 20년이 넘는 F1 개최 경험은 모터스포츠를 가족단위 레저문화로 정착시킨 때문이다. 10일 결승전 현장에서 만난 뜨거워진 요시미츠씨(44)는 “12살 난 아들을 포함해 4명의 가족이 도쿄에서 6시간을 달려 스즈카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F1를 보곤 했다”며 “그때 기억때문인지 나도 자연스럽게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주장 인근 텐트촌에는 243일간의 F1 축제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의 텐트만 600여동에 달했고 경주장 스탠드 주변에는 돛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대다수 관람객들이 레드불 레이싱과 페라리 등 특정 팀의 모자와 옷을 입고 응원을 할 정도로 팬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기대만큼 외국인 관람객이 많지 않은데도 일본 그랑프리가 성공하는 이유다.

◇성공 비결=스즈카서킷도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서킷이 생기면서 자연스

F1 그랑프리 가보니

전국서 모인 9만여 관중 스탠드 열기 경기장 인근 마니아 텐트 600동 복적

일본 미에(三重)현 북부에 있는 스즈카시는 1년에 한번 씩 마법에 걸린다.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인 ‘포뮬러 원(F1) 일본 그랑프리’가 열리기 때문이다. 결승전이 열린 지난 10일 스즈카 서킷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9만6000여명의 관중들이 스탠드를 가득 메웠다. 예선전이 예정된 9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F1 마니아들이 폭우로 세차레나 경기가 지연되고 결국 다음날로 연기됐는데도 끝까지 스탠드를 지켜낼 정도로 강한 애정을 보였다.



지난 10일 ‘포뮬러 원(F1) 일본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일본 스즈카 서킷의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이 F1 마니아들의 질주에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신문기자단>

스즈카는 인구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가 열리는 영암과 비슷하고 일본 그랑프리 가 코리아 그랑프리 직전에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성공개최를 위해 참고할 점이 많다.

◇아시아 최초의 서킷=스즈카시는 인구 20여만명으로 일본 제3의 도시인 나고야에서 남서쪽으로 52km 떨어져 있다. 최대 도시 도쿄까지는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서킷은 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스즈카시 인구와 비슷한 목포를 거점으로 서울에서 5시간, 광주에서 1시간인 영암 서킷과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하다.

1962년 혼다의 테스트트랙으로 지어진 스즈카서킷은 아시아 최초의 자동차 국제공인 서킷으로 1987년부터 20년간 F1대회를 개최했고 보수를 통해 지난해부터 다시 F1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트랙은 5.807km로 F1 서킷에선 유일하게 입체 코스로 설계된데다 굴곡이 많아 경주도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다이내믹한 코스로 유명하다. 10일 결승전에서도 3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개최 역사 20년...가족 스포츠 정착

연중 모터 스포츠 대회 예약률 90%

“영암과 함께 유럽 관광객 부르자”

◇가족 스포츠 정착=일본 팬들의 F1 사랑은 대를 이어 정도로 뜨거웠다. 50여년에 가까운 서킷 역사와 20년이 넘는 F1 개최 경험은 모터스포츠를 가족단위 레저문화로 정착시킨 때문이다. 10일 결승전 현장에서 만난 뜨거워진 요시미츠씨(44)는 “12살 난 아들을 포함해 4명의 가족이 도쿄에서 6시간을 달려 스즈카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F1를 보곤 했다”며 “그때 기억때문인지 나도 자연스럽게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주장 인근 텐트촌에는 243일간의 F1 축제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의 텐트만 600여동에 달했고 경주장 스탠드 주변에는 돛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대다수 관람객들이 레드불 레이싱과 페라리 등 특정 팀의 모자와 옷을 입고 응원을 할 정도로 팬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기대만큼 외국인 관람객이 많지 않은데도 일본 그랑프리 가 성공하는 이유다.

◇성공 비결=스즈카서킷도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서킷이 생기면서 자연스

롭게 자동차 안전문화가 자리잡고 서킷 룰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리의 폭주족도 사라지게 됐다. 연중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면서 속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서킷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거뒀다.

요즘에는 프로 선수부터 아마추어 동호회까지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서킷 예약률이 90%를 넘는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때문인지 스즈카서킷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하지만 교통문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일본의 사례로 볼때 코리아 그랑프리도 개최 경험이 쌓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스즈카와 비슷하고 일본대회와 한국대회가 연이어 열린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성공 개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조하타 히로시 국토교통성 관광청 장관은 “(이런 장점을 활용해) 양국이 F1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면 두 대회가 F1의 가장 인기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팔수기자 bungy@kwangju.co.kr

●●● 중소기업 성공 징검다리 ●●●

제 3기 CEO 명품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실전경영 : 2010년 10월 30일(토) - 2011년 3월 19일(토)

▶ 교육신청 (50명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차세대 CEO(1인 창조기업 포함)
- 교육비 : 100만원(수료시 50만원 환급)

▶ 참가문의

- 중소기업호남연수원 ☎ 062)250-3000, FAX : 062)250-3077
- 홈페이지 : <http://gjti.sbc.or.kr> • E-mail : miso@sbc.or.kr

▶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간
실전경영	기업가 정신, 마케팅, 리더십,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정책자금 100% 활용하기 등	격주 토요일 (총 12회)

참여교육기관 :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기술혁신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트라 등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호남연수원 홈페이지 <http://gjti.sb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